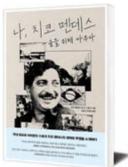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인조 1636(유근표 지음)='인조실록', '승정원일기', '만문노당(滿文老樵)' 등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인조와 병자호란에 대한 완전한 재인식. 어리석은 군주의 권력욕이 불러온 병자호란의 참화와 소현세자의 죽음을 낱말이 파헤친 역사 펄싱. 북루텐스. 1만8500원.



▶나, 치코 멘데스-숲을 위해 싸우다(치코 멘데스·토니 그로스, 이종근·이푸른 옮김)='국내 최초로 '아마존의 수호자'이자 고무 채취 노동자로서 동료는 물론 선주민과의 연대를 이룬 치코 멘데스의 생애를 소개한다. 틈새의시간. 1만7000원.



▶참지 않는 여자들(자일리 아마두 알말 지음, 장한라 번역)='서로 얽힌 세 가지 운명, 세 인물의 중창으로 이뤄진 소설은 사랑하는 사람과 강제로 떨어져 나이 많은 부자와 절흔하게 된 어린 람라와 사촌과 끈없이 결혼하게 된 람라의 이복자매 힌두, 남편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람라를 포용해야 하는 사피라의 운명을 뿔어본다. 올리시스. 1만5000원.



▶언론 좀 아는 10대(정민지 지음, 이해원 그림)='요즘 청소년들이 뉴스와 언론의 역할과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언론에 숨겨진 '생각'들을 읽고 '나만의 진짜 관점'을 만드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책이다.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여론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뉴스를 둘러싼 프레임 알아차리는 법,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법, 언론의 진정한 역할까지 다루고 있다. 풀빛. 1만3000원.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박미자 지음)='이 책은 중학생을 대변하는 어른이자 교육자이자 연구자인 저자의 발간 10주년 기념 개정판. 중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읽기를 바라는 책'으로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중학교 교사들이 동료 교사나 중학생 학부모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책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들녘. 1만7000원.



▶초일이(임미현 지음, 그림)='학년 담임선생님이 들려주는 학교생활 이야기. 언제나 '100살'이라 우기는 담임선생님과 좌충우돌 사랑꾼 '초일이'들이 펼치는 빵 터지다가 찡하다가 몽클하다가 끄덕이다가 이내 마음이 놓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초등 1학년 교실 이야기가 활짝 열린다. 이야기꽃. 1만7500원.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사랑이 가 닿기를”

장혜진의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시리고 처절한 고통에 맞선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가혹하고 척박한 삶 속에서 사랑은 대체 무엇이였을까.

책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책구름 펴냄)의 저자 장혜진 작가는 “삶과 사랑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을 발가벗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저자는 가정폭력과 우울증, 싱글맘, 그리고 찾아온 두 번의 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책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침에서 시작된다. 작가가 “비록 고통 속이었지만, 처음으로 삶을 인식했다”는 삶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다. 그렇게 크게 4장으로 나눠 자신의 삶을 써 내려간다. 저자는 소설에서나 일어날 법

한 흑독한 현실과 격정적인 감정 속으로 독자를 휘몰아 가면서도 상황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한 존재를 사랑하는 일이 나를 살렸다”며 “과거의 나처럼 상처받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 위해 글을 쓴다”는 저자는 “이 이야기가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가 있다면 자기 안에 숨어 있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나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과 같은 고통의 계절이 오기 마련이다. 지금 그 계절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이 가닿기를(프롤로그 중)” 바란다.

출판사는 “죽어야만 끝날 것 같은 처절한 고통과 살아갈이 곧 절망인 이들에게 살아갈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거대한 파고에 부딪힐 때마다, 우울하고 지치고,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저자의 시리고 척박했던 삶 자체가 강력한 처방전이 되어 줄 것”이라며 “쓰러지고 내동맹이쳐져도 매번 다시 몸을 일으켜 어둠뿐이던 삶에 색을 입혀갔던 그녀의 글을 등불 삼아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낼 것이다. 울면서도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만80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고독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법

최승호의 '마지막 눈사람'

책 '마지막 눈사람'은 '눈사람 자살 사건'의 최승호 시인이 최근 펴낸 어른을 위한 우화다.

시인이 '작가의 말'에서 말하듯 “이 책은 우리 은하계의 한구석에 있는 어느 별의 죽음에 관한 짧은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눈사람”이다. 독자들은 책에서 끝없이 엄습해 오는 고통과 좌절을 고독으로 버틴 눈사람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눈사람'은 눈사람이 절망하는 그로테스크한 동화다. '이슬 우화'나 '동물 농장'이 보여준 기존의 우화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몸이 얼어붙는 듯한 은유로, 깊은 슬픔과 고통의 기록으로, 문명의 폭력에 죽어 가는 생태의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우화 전체를 감싸는 작가의

그로테스크적 상상력은 현실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린다.

눈사람의 죽음은 단순히 생명이 없어지는 죽음과는 다른 것이다. 작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독자들과 함께하려고 한다.

책은 27개의 장면을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상단에서는 빙하기 지구에 홀로 남은 눈사람의 독백이 한 편의 이야기처럼, 하단엔 눈사람의 상황과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작은 서사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하단의 이야기는 눈사람의 말로도 단고, 또 다른 등장인물로 느껴지기도 한다.

류신 중앙대 유럽문화학부 교수는 해설에서 “우리는 소통이라는 핑계로 새로운 관계 맺음에 집착한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회피한다. 잠시라도 고독을 참지 못해 스마트



폰을 만지작거릴 뿐”이라며 “고독은 내면의 진술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청진기이다. 절대 고독은 자아를 세상 전체와 독대하게 만든다. 단독자로서 무변광대한 우주와 마주 서라”라며 마지막 눈사람의 목소리를 전한다. 출판사도 “작가는 어떤 거짓된 위로도 거부하며 고독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소개한다. 그림 이지희, 상상. 1만5000원. 오은지기자

서로에게 가족이 된 순간 시작된 기적

이신아의 '제주탐묘생활'

고양이 '히끄'와 아버지의 제주 생활기 '히끄네 집' (2017) 후속편 '제주탐묘생활' (야옹서가 펴냄)이 출간됐다.



'히끄네 집, 두 번째 이야기'란 부제가 달린 이번 책엔 빈손으로 제주에 왔던 저자 이신아 작가가 길고양이 히끄를 가족으로 맞이한 후 겪은 기적 같은 변화가 담겼다. 1년을 고민하다 히끄의 입양을 결심한 저자는 여성이지만 '아버지'가 되기로 한다. “엄마라는 이름은 너무 소중한 하니까 히끄를 낳아 준 고양이 엄마에게 양보하겠다”는 마음으로.

서문에서 저자가 “제주에서 뭔가 시도한 일이 있다면 그건 히끄를 위한 거였다”고 밝히듯 히끄와 살고 싶어 민박 주인이 됐고, 히끄와 먹을 채소를 텃밭에 키우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배우는 등 바쁜 삶을 꾸려가는 모든 변화는 히끄가 있어 가능했다.

저자는 히끄와의 일상 이야기를 꾸준히 전하면서 성묘 입양으로도 행복한 반려가족을 이룰 수 있음을 전한다.

저자가 포착한 히끄의 일상은 더욱 다채로운 사진으로 남았다. 미소를 짓게 하는 히끄의 다양한 표정을 순간 포착한 절묘한 사진 등 '1인 1묘' 가정의 행복한 일상과 아름다운 제주 풍광이 161장의 사진에 스며들었다. 1만7000원.

폭력의 근원적 이해 시도 '폭력 계보학'

윤진이 이상보 목사, 20일 제주서 북 콘서트

찰스 벨린저(미국 브라이언트 신학대학원,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교수)는 현재까지 논의되는 기존의 폭력에 대한 이론들이 과연 폭력의 근원에 대해 의미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는가에 대해 질문한다.



책 '폭력 계보학' (카리스 아카데미 펴냄)에선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와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에 초점을 두고 폭력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와 20세기에 일어난 대규모 폭력 사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윤진은 제주출신 이상보 목사다. 올해 1월부터 고향 제주에서 크로스 교회(제주시 구산로 4길 13-4)를 개척하고 섬기고 있는 이 목사는 '윤진의 글'에서 “이 책을 통해서 '폭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조금이나마 더 지혜롭고, 성숙해질지 소망한다”고 말한다.

이 목사는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제주성안교회 이기풍 기념홀에서 '폭력 계보학' 북 콘서트를 연다. 이어 4월 29일(오후 4-6시)엔 북 콘서트에 이은 인문학 심화강좌도 준비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성산포수협 조합장



김 계 호

성산포수협 조합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산포수협 어촌계장협의회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성산포수협 조합장



김 계 호

성산포수협 조합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노현규 외 통문 일동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안덕농협 조합장



이 한 열

안덕농협 조합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문화대학 2기
회장 김문원 외 회원 일동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안덕농업협동조합장



이 한 열

안덕농업협동조합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환경대학20기 2팀
회장 김종철 외 회원 일동